

[나와 《결림신문》]

© 리미란

나를 이끌어준 《결림신문》

내가 소학교 6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 한분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결림신문》이라고 하는 우리말 신문이 새로 생겼다면서 우리 모두 주문도 하고 열독도 했으면 좋겠다고 선전하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신문에 대해 잘 몰랐던 나는 처음으로 우리말 《결림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연변대학 조문학부에 입학하면서부터 앞으로의 직업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때 내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아나운서나 기자 직업이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 이 두가지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내 최고의 직업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나는 대학 지정 양성생이어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이 두가지를 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졸업후 모교에 돌아와 교원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 들뜬 마음으로 보냈다. 그러다 차차 학생들과 정이 들면서 이 직업에 점차 마음을 붙이게 되었다. 마침 2008년에 건교 4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로부터 우리 조선어문조 교원들에게 《결림신문》에 좋은 글을 부지런히 발표하라는 임무가 내려졌다. 한창 담임사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정을 붙인 나는 교원이란 직업도 참 성스럽고 애착이 가는 직업이란 것을 느끼면서 솔직하고 소박한 나의 마음을 담아 <후회 없는 선택>이란 글을 써보고 싶었다.

교직사업에 참가한 후 처음 쓰는 글이라서 발표 여부가 많이 걱정되었지만 대담하게 용기를 내어 원고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메일로 넘기자고 보니 아직 내 자신의 이메일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누구나 다 이메일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발표될지 말지 하는 작품이지만 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나의 이메일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의 첫 이메일이 탄생되었고 그 이메일을 최초로 사용하여 결림신문사로 나의 첫 작품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후 신문사의 교육면을 담당한 김정환선생님이 학교로 전화가 와서 좋은 글을 영품한 데 넘겨서 분실할 뻔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작품을 ‘인성교육 응모작’에 넘겼다고 하셨다. 사실 그때 나는 응모활동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안이 방방해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네, 네 …”라고만 했다. 그런데 약 석달이 지났을가, 김정환선생님이 또 학교로 전화를 해 시상식에 참가하라고 알렸다. 나는 얼떨떨한 김에 무슨 상인가고 감히 물어보지도 못한 채 참석 날자만 기다려 지정된 호텔에 가게 되었다.

그날 기념상이나 받아도 너무 감지덕지할 일인데 시상식에서 뜻밖에 은상이라는 목직한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무슨 운이 그리도 좋았던지 너무 넘치는 상을 받게

되어 격동이라 할가, 한동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잠재우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상을 받고 보니 정신이 다 얼떨떨할 지경이었다. 나로서는 실로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애써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제발 꿈이 아니길 바랐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나의 작품은 정말 잘 다들여지지 못한 작품이라고 자인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의 솔직하고 소박한 감정이 아마도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가 싶다.

하지만 상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글쓰기에 심신을 얻었고 글쓰기에 애착이 생긴 것이다. 그날 시상식에 참가하고 돌아올 때 김정환선생님은 앞으로도 《결림신문》에 내 글이 많이 실리기를 바란다는 고무의 말씀도 해주셨다. 나는 그냥 조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지 그런 멋진 날이 언제 오겠냐 싶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나를 신뢰하여 각종 행사 보도 업무를 맡겼다. 덕후활동, 교수행사 소개, 홍수피해 복구에 힘쓴 교사들의 이야기, 리춘자 장학교 설치 같은 감동적인 소식들을 특속 《결림신문》과 《조문송화강》(朝聞松花江)에 꾸준히 보내며 나도 모르게 ‘아마추어 기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급한 성격 탓에 차영국기자님께도 “빨리 게재해주세요!”라고 닥달했다가 “한박자 쉬고 감지다!”하고 유머스런 답장을 받은 적도 있었



▲ 저자 리미란

지만 매년 지면과 인터넷에 내 손으로 쓴 글이 실릴 때마다 나는 가슴 뛰는 설렘을 금하지 못했다.

내 글을 《결림신문》에서 많이 보기를 바란다는 김정환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아주 황홀하고 실현될 수 없는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림신문》의 지면과 인터넷에 내 글이 적잖게 발표된 것도 사실이다. 아마 그제날 김정환선생님의 믿음과 기대가 뒤받침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결림신문》은 나의 지도교사이자 나를 길러준 은인임에 틀림없다.

내가 《결림신문》에 글을 발표하면서부터 학교의 대행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근 17년 동안 결림신문사로 학교의 소식을 보냈으니 신문사의 40년 발자취 속에 나의 성장 흔적도 바다 속 모래알처럼 반짝거리지 않을가 싶다. 결림신문사의 전직기자로 되고픈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마추어 기자(자칭)로 나를 활약하게 된 데 대해 너무 뿌듯하다고 자부심 넘치게 말하고 싶다.

수험생, 지원서 작성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가?

첫째, 성적을 근본적 기초로 해야 한다. 대학입시 성적은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는 관건적 요소로서 이는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전공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대학교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학교는 수험생이 지원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수험생이 누구와 함께 공부할지, 어디에서 공부할지, 어떤 내용을 배울지 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수험생은 대학교를 선택할 때 대학교의 역사배경, 지리적 위치를 료해해야 할뿐더러 대학교의 교원력량, 학교 건설, 과학연구수준 등 방면이 포함된 종합적 학교 운영 실력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취미와 전공 취업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공은 수험생이 지원을 선택하는 핵심 요소로서 학생의 학습 흥취와 직업 발전 방향과 밀접히 관련된다. 중점대학이 그 우세 전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도 각자의 특색 전공이 있는바 학교를 우선으로 선택할지 전공을 우선으로 선택할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며 개인의 정황에 따라 균형을 맞

춰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개성과 특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대학입시 개혁 지역의 수험생은 선택시험 과목 범위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전공 선택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세와도 관련이 있는바 일부 전공은 지원할 때는 매우 인기가 있지만 취업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전공의 발전 전망을 리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넷째, 자신의 신체 등 조건과 결부해야 한다. 전공과 신체 정황은 일정한 관련이 있는바 일부 전공은 시력, 색각, 기질성 건강 정황 등 방면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교



는 전공학습의 요구에 근거해 단일과목 성격과 외국어 회화 등에 대해 특정 요구를 제기한다. 또한 일부 중외 협력 전공, 민영대학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기에 수험생들은 지원할 때 가정의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원간의 단계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고, 중, 저 조합의 방식으로 지원서를 작성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런 배치는 비교적 합리하여 서류 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연길시, 전국청년과학보급혁신대회 결림 본선서 우수한 성적



최근, 제 11 회 전국청년과학보급 혁신실험및작품대회 결림지역 본선이 결림성과과학기술관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연길시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결림성과과학기술협회 주최, 결림성과과학기술관 주관으로 성내 수많은 우수한 청년과학애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미래 우주차’(중학생부문),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중학생부문), ‘인공지능 협업’(대학생부문) 등 도전적인 분야의 다채로운 경기 과제를 통해 청년세대의 혁신 사고와 실천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특히 ‘미래 우주차’ 부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길시제 7중학교와 연길시직업고급중학교 두 대표팀의 총 네 명 학생들은 강호가 빼곡한 경기장에서 특별한 용기와 실력을 과시했다. 우

주자의 창의적 구상부터 모형의 반복적 시험, 현장의 치열한 제작 경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력을 다했다. 탄탄한 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 팀원간의 완벽한 협업을 바탕으로 두 팀은 각각 해당 부문 2등상과 3등상이란 쾌거를 이루며 연길시에 영예를 안겨주었다.

이번 대회는 연길시 청소년들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에 대한 한차례 집중 전시일 뿐만 아니라 과학보급 교육사업 성과에 대한 중요한 평가의 장이었다. 고수준의 경쟁 활동 참여를 통해 연길시 청년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혁신 사고와 실천 능력을 제고한 동시에 더 많은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연길시는 앞으로도 과학보급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백년의 무형문화유산 ‘룡선’에 매료된 외국인 선수들

단오 련휴 기간, 중국 광둥성 불산시 첩교(叠滌)에서 ‘수상 표류’로 유명한 룡선경기가 열렸다. 특히 이번 경기에 외국인 선수가 직접 참여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단오날 저녁 8시, 불산시 남해구 첩북 마을 강변은 룡선 야간 훈련을 관람하러 모여든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북소리와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를 저으며 물살을 가르는 룡선들이 강 우를 누볐다. 그중 금발의 외국인 선수인 독일 룡선 애호가 벤자민선수가 중국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노를 저으며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벤자민은 “정말 멋졌습니다. 실제 룡선팀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다니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팀의 속도에 맞추는 게 초보자인 저에게 쉽지 않았고 팔도 너무 아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43살인 벤자민은 현재 불산에서 맥주 양조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첩교 룡선경기를 본 후 이 스포츠에 푹 빠져 올해 직접 룡선팀을 찾아가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평



▲ 벤자민과 온영성

소 꾸준히 운동을 하고 조정 경험도 있지만 룡선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운동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벤자민은 룡선 훈련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룡선정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어에 능숙한 팀 동료인 온영성은 그에게 룡선을 소개하며 ‘유룡(游龙)’ 의식, 룡선 세척, 룡선 음식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도왔다. 벤자민은 룡선경기를 통해 백년의 력사가 깃든 이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다며 룡선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며 여러 도시를 거쳤지만 지금 이곳처럼 자신에게 ‘집’같은 느낌을 준 곳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영성은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룡선 문화를 이해하려 한다며 자신에게는 이를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화를 소개할 때마다 큰 자

부심을 느낀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자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룡선 애호가인 마이클은 올해 2월 첩교 룡선팀에 합류했다. 그의 집에서 첩교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매일 밤 빠짐없이 훈련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는 룡선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동료들과 쌓은 깊은 우정 덕분이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팀원들이 처음부터 저를 한臂원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도움을 줘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물에 빠졌는데 얼굴이 물위로 드러나기도 전에 두 사람이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저는 문화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룡선을 저으며 만들어낸 이 특별한 풍경은 전통적인 룡선 문화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백년 력사를 가진 이 무형문화유산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다. / 국제방송



소학생들의 논밭 실천 수업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와 논밭에서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로동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느꼈다. 5월 24일, 일찌감치 풍정시 비암 마을에 도착한 연길시북산소학교 4학년 6반 학생들은 ‘도시의 어린 농부’가 되어 선생님의 안내를 받는 지도하에 모내기를 하였다. 흙탕물이 튀고 옷이 땀에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 리군광

중로 청소년 취미게임대회 연길시



6월 1일, 중로 청소년 취미게임대회가 연변체육관에서 열렸다. 중국과 로씨야에서 온 100여명의 청소년이 경기에 참가해 다채로운 게임으로 우정을 다졌다.

경기는 ‘바줄당기기’, ‘원통 통과 작

전’, ‘고무비양(鼓舞飞扬)’, ‘도관으로 뿔 전달’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열정을 다해 몰입하며 팀워크와 경쟁 정신을 발휘했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응원도 끊이지 않았다. 랑국 청소년들은 경기를 통해서 배우고 상호간의 이해와 우정을 넓혔다.

이번 대회는 취미 스포츠를 담체로 중로간 체육·문화 교류 협력의 새로운 다리를 놓았다. 스포츠를 매개로 관광체험, 문화전시, 상업교류 등 다양한 내용이 융합되면서 연변에 대한 국내외 스포츠 애호가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아가 체육·관광·문화·상업 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으며 국제적 스포츠 교류와 학습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결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 연변조간신문